미국의 민족문제*

최 협

미국은 이민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이다. 한 통계에의하면 지금까지 대략 5천만명 이상이 세계 각처에서 북미대륙으로 이주하였다 한다. 따라서 미국사회는 수 많은 종족 및 인종집단으로 얽혀진 하나의 모자이크라 할 수 있다. 미국사회의 다양한 민족집단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동화이론, 문화적 다원주의, 그리고 갈등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세가지 이론은 각각 특정집단의 적응과정과 특정집단들간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배타적이다기 보다 차라리 미국사회의 역사적 현실의 일면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미국사회에있어서 민족간관계의 유형은 시대에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그 유형을 분류해 보면 배척과 소외, 공존, 앵글로문화로의 동화, 다원주의, 그리고 위계적 서열관계로 나뉘어진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의 다양한 민족집단 사이에서 관찰되고있는 상이한 관계유형들은 각각의 이민집단들이 갖는 사회, 경제, 문화, 인구학적 특성과 이민의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른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미국의 민족문제를 통시적, 공시적 차원에서 분석 해 보면 '인종'이라는 범주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특히 인종차별주의와 불평등이라는 요소가 미국 민족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민족문제의 이해는 결국 인종문제에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구 소련 연방과 동구권의 붕괴 이후 세계사적 변화의 와중에서 민족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민족문제가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데올로기에 가리어져 표면에 노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민족문제는 흔히 봉건적인 구시대의 잔재로 치부되어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거나, 또는 근자에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 국제화의 물결 때문에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구 소련이나 유고의 와해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가 종말을 고하자 사회의 표면에 크게 부상하고 있

* 이 논문은 1994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에 의해 작성되었음.

는 것이 민족문제인 것이다.

민족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다양한 민족의 존재(prevalence of ethnic diversity)는 6,000개에 달하는 언어와, 학자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는 하지만 1600 여개에 달하는 종족집단(major cultural groups)이 민족문제의 복잡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구 소련 연방에는 130여개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민족집단(nationalities)이 있었고, 서구에서는 민족운동(ethnic movement)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둘째, 유엔에 가입된 183개국 중에서 동일 집단으로 형성된 국가는 몇 개 되지 않는다. 셋째,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세계에 있어서 민족간의 갈등은 흔히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킨다. 실제로 2차대전 이후 세계의 국가중 절반 정도가 민족 갈등을 경험하였다(Williams 1994 : 50). 2차대전 이후 전쟁에서 사망한 숫자의 80%는 국가내의 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이며, 이 중 대부분은 민족간의 집단적 폭력에 의한 것이었다. 1945년 이후 민족간 갈등에 의한 사망자의 숫자는 학자에 따라 1천 1백 만명에서 2천만 명에 이른다(Toper 1992).

사실 민족문제에 관한 관심은 지난 20여 년간 많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표명되어 왔다. 민족주의(nationalism) 또는 민족국가의 발전 문제(development of nation states)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그 좋은 보기이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점차 많은 학자들이 복합적인 근대 국가에 있어서도 그 세력을 잃지 않고 있는 민족집단(ethnies=ethnic group : 인류학에서는 종족 집단이라고 함)의 존재에 주목하고 그러한 집단들간의 관계 및 그것이 정치 · 경제 · 사회 문화의 제 과정에서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보다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민족갈등(ethnic conflicts), 민족정치(ethnopolitics), 민족계층(ethnoclass)과 같은 용어나 개념의 등장이 그를 잘 말해 준다. 민족 문제에 관한 이상과 같은 관심을 고려했을 때 미국 사회는 사회 과학자들에게 퍽 흥미로운 연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에서 정치 · 경제 · 군사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국가들 즉, 구소련, 중국, 인도, 미국 등은 모두 다민족 국가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민족문제는 오늘날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즉 구소련의 해체는 대체로 민족의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인도의 민족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정치 ·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며, 중국의 경우 장차 지역 분권화의 경향이 민족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민족간의 갈등이 국가의 분할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흑인 폭동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족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며, 미국 사회의 제반 현상의 이해에 있어 민족문제의 고찰은 필수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본 연구는 미국사회의 민족문제의 특성을 분석하여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서 아직은 초보 단계에 있는 국

내의 미국학 분야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개념의 정리 : 민족, 종족, 인종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집단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민족이라는 용어보다는 인종(race)이나 종족집단(ethnic group)이라는 개념이 보다 널리 쓰여져 왔다. 특히 미국은 역사적으로 흑인 노예의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흑·백 인종간의 편견, 차별, 갈등 따위의 문제가 일찍부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여러 집단에 관한 접근에 있어서도 흑·백의 문제가 영향을 주었고, 따라서 흑인 소수 민족집단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미국의 다양한 집단의 문제를 인종간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일찍부터 형성되었다. 그러나 여러 집단들 사이의 편견이나 갈등 문제는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 같은 인종, 예컨대 백인종 내에서도 발견이 된다. 서구, 남구, 그리고 동구 출신 이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편견, 갈등이 좋은 보기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에의 접근에는 인종보다는 종족이라는 개념이 적합성을 갖기 때문에 점차 종족성(ethnicity)의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집단간의 관계 연구에 있어서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문화적 차이가 더욱 중요시됨을 암시해 준다. 그러나 종족이라는 용어는 인종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엄밀성과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실제 종족을 분류하는 데는 커다란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언어나 문화로 종족을 나눈다고 하나 지역과 역사적 시기에 따라 그 기준은 매우 유동적이다. 인도에서는 종교가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푼잡인과 벵갈인은 종교를 공유한다. 벨지움의 플레밍과 왈룬 두 집단간의 갈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들의 차이란 실제로는 언어의 사소한 차이일 뿐이다. 이락의 시아파 모슬램은 이슬람교의 일분파에 지나지 않으나 매우 다른 집단으로 규정되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 볼수있는 바와 같이 종족의 분류가 그리 쉬운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출신 국가(지역단위)와 문화(언어, 종교 등)를 동시에 고려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대안이 설득력있게 대두된다.

새우리말 큰 사전(삼성출판사) 최신판에 의하면 인종, 종족, 민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종이란 "골격, 피부색, 머리카락의 빛깔 따위 신체적 특성에 의하여 구분한 인류의 집단으로서 백색 인종, 황색인종, 흑색 인종 등으로 나눈다." 종족은 "같은 계통의 언어나 문화 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르키는 말" 로서 "인종, 언어, 문화가 합치하게 되면 종족분류도 용이하나, 사실은 그 차이가 많아 확고한

분류가 어렵다." 민족은 "동일한 인종적 및 지역적 기원을 가지거나 또는 가진다고 여겨지는 역사적 운명 및 문화적 전통, 특히 언어, 종교, 역사, 생활양식 등을 공통으로 하는 기초적 사회집단"을 뜻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종은 주로 생물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한 것이며, 종족은 문화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민족은 생물학적, 지역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분류 범주이다. 그러나 '종족'과 '민족'은 사실상 문화가 그 분류 범주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 가체가 중복되고 있고 실제로는 종족집단과 민족집단은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 현실적인 고려로서 한국 사회에서는 종족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회과학, 특히 인류학에서 많이 사용될 뿐 일상적으로 종족은 민족의 개념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데 한국, 일본, 중국인 집단 등은 서로 다른 종족집단임과 동시에 상이한 민족집단들인데 이들을 지칭할 때 '종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구 유고연방에서의 분쟁은 영어로는 종족분쟁(ethnic conflict)이지만 모든 언론 매체에서는 '민족 분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개념자체가 갖는 중복성과 일상적 쓰임새에 비추어 볼 때 영어의 ethnic group을 민족집단이라 칭하여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사실 미국의 학계에서도 학자에 따라 ethnic group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원래 'ethnic'이라는 영어는 '국가'라는 뜻을 갖는 그리스어 'ethnos'에서 연유된 것으로서 이교도 국가나 집단을 지칭하는데 쓰여졌다. 그후 Ethnics는 14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기독교를 믿지 않는 국민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2차대전 이후 유태인, 이탈리아인, 폴란드인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늦게 이주해온 백인계 이민집단들을 이미 미국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영국계 후손이나 이민들과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Eriksen, 1993 : 4). 이는 ethnics라는 용어가 미국학계에서 한때 매우 제한적인 집단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쓰여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민족'이라는 용어를 영어의 'nationalities' 뿐만 아니라 'ethnics', 'ethnic group'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려 한다. 다만 문맥상 필요할 경우 ethnics나 ethnicity는 종족 또는 종족성으로 표현할 것이다.

Ⅱ. 미국 : 이민 사회, 다민족 사회

미국은 이민에 의해 형성된 나라다. 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략 5천만명 이상의 이민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표 1〉참조). 따라서 오늘날 미국 사회에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한데 모여 국가(nation of nations)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현재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수는 아일랜

드의 인구보다 많고, 미국의 유태인 수는 이스라엘의 인구보다 많으며, 흑인의 수는 대체로 어느 한 아프리카 국가의 인구보다 많다. 또한 디트로이트 시에는 폴란드의 어느 대도시 인구보다 많은 폴란드계 사람들이 살며, 뉴욕 시에는 베니스 인구의 두 배가 넘는 이태리계 사람들이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멕시코계 이민의 수는 멕시코 시를 제외한 여타 다른 멕시코 도시보다 많은 숫자이다. 미국 사회는 확실히 수많은 민족집단이 한데 얽혀 만들어 낸 하나의 모자이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사회의 모든 현상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의 이면에는 민족집단간의 경쟁, 갈등, 협조, 융화 등 소위 민족변수(ethnic variable)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민족집단의 관계와 문제(ethnic relation and ethnic problem)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표 1〉 미국 이민의 출신지역별 분포 1820-1977

지 역	이민의 숫자	비율(%)
유 럽	36,126,807	75.1
북 남 미 주	8,784,241	18.3
아 시 아	2,610,164	5.4
아 프 리 카	121,723	0.3
오 스 트 랄 리 아 뉴 질 란 드	115,843	0.2
태 평 양 제 도	24,434	0.05
미 상	280,311	0.6
합 계	48,063,523	99.9

출처 : Dinnerstein, Leonard & David M.Reimers, 1982. *Ethnic Americans*(2nd ed.), New York : Harper & Row, pp.156-162의 통계자료를 정리했음.

미국은 지구상에 그 유래가 드물게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여러 집단들에 의하여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간의 관계 역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족간의 관계와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미국을 흔히 역사가 짧고 다양한 민족이 섞여있는 전통 없는 사회로 간주하려는 시각도 있으나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서의 미국은 독일이나 이태리보다 더 오래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거대한 대륙에 걸쳐 있는 미국 사회는 다른 많은 다 민족 국가와는 달리 일찍부터 하나의 언어 문화권을 고수하고 같은 법체제의 적용, 그리고 동일한 경제 체제를 유지해 옴으로써 강력한 사회적 통합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미국으로의 이민과 다양한 집단간의 관계는 미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

과 미국적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에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온 청교도의 이주를 계기로 그 역사(특히 기록으로서의)가 시작되었다. 그후 점차 유럽인들의 이민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반은 자유인이었지만 나머지 반은 노예였던 국가로 출발한 것이 미국이었다.

1790년 최초의 공식적 인구통계(offical census)에 의하면 미국의 인구는 백인이 80.73% 그리고 흑인이 19.27% 였으며 백인들의 출신지별 분포는 〈표 2〉와 같았다.

〈표 2〉 1790 백인 인구의 출신 국가별 분포

출 신 국 가	숫 자	비율(%)
잉 글 리 쉬	2,605,699	82.1
스 코 틀 랜 드	221,562	7.0
아 일 랜 드	61,534	1.9
화 란	78,959	2.5
프 랑 스	17,619	0.6
독 일	176,407	5.6
유 태 인	1,243	*
기 타	9,421	0.3
합 계	3,172,444	100.0

* 0.01 % 이하

출처 : Cavaioli, Frank J., 1984, *The Peripheral Americans*. Malabar, FL : R.E. Kriger Publishing Co. p. 19.

미국 독립 초기인 1790년부터 1840년까지는 이민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민의 숫자가 크게 불어난 것은 1840년대로서 10여년전 보다 3배나 늘어난 이민의 유입이 있었고 그로부터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까지 미국으로의 이민은 봇물이 터진 듯 그칠 줄 몰랐다. 1842년의 이민은 10만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1907년에는 1백 30만에 육박하는 숫자가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1840년대 초반부터 1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3천만이 넘는 이민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 많은 수는 1880년에서 1914년 사이의 이민이었다. 이 기간 동안의 미국 이민과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민의 지역별 원천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1880년대까지 대부분의 이민은 유럽의 북서부 국가들로부터 이루어졌으며 유럽 남부와 동부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은 그 숫자가 무시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이후부터 유럽 남부와 동부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해에 이르면 미국으로의 이민 중 그 절반 가량이 남부 및 동부 유럽인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그러는 동

안 미국 이민의 4/5를 충당해 주던 북서부 유럽으로부터의 이주는 1/4 수준으로 줄었다. 그 외에 서반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민을 미국으로 보낸 단일 국가로는 카나다가 있었다. 이 시기의 카나다 이민의 숫자는 미주 대륙 전체 국가들로부터의 합계 보다 많았다. 한마디로 19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 되기 시작한 미국의 이민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0세기 초반까지의 변화가 있었다면 유럽 북서부 지역에서 남부와 동부 지역으로 이민의 원천이 바꾸어졌다는 점이다.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은 극히 제한 적이었으며 동양으로부터의 이민은 그 초기부터 차별과 제한이 가해졌다. 예컨대 1882년에는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이 있었고 다시 1921년과 1924년대 동양계 이민에 차별적인 법이 제정되었다. 이와같이 차별적인 이민법은 1965년 이민법의 획기적인 개정이 있을 때까지 별다른 수정없이 지속되었다.

1920년대의 이민법에 의하여 해외이민의 문은 좁아졌으며, 새로운 법안은 당시의 인구구성 비율에 따라 이민 쿼타가 배정되도록 함으로해서 영국, 스코틀란드, 독일과 아일랜드계의 이민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미국 사회의 인종 및 종족적 구성의 비율은 과거의 유형이 유지 내지는 강화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20년과 1960년 사이에 세계대전, 경제공황 등을 겪으면서 미국 사회는 크게 변모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2차대전 이후에는 독일의 유태인 학살을 계기로 인종주의에 대한 회의와 동부 유럽과 소련의 유태인들을 더욱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이 증대하는 가운데 1960년대에 들어서 이민법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서부와 북부유럽 이민을 선호하는 이민법을 바꾸도록 하는데는 이태리, 폴란드, 그리스 그리고 유태인들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다(1960년대의 주요 변화는 1964년의 민권법안(Civil Right Act)과 1965년의 새로운 이민법, 그리고 1968년의 선거권 법안(Voting Rights Act) 등을 들 수 있다).

1965년 새 이민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민의 수는 다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민의 원천이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1950년대의 이민은 독일, 카나다, 영국, 이태리의 순으로 그 수가 많았으나 새로운 이민법이 시행된 이후 1970년 대에 이르면 멕시코, 필리핀, 한국, 중국의 순으로 그 순위가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남미계통의 불법 이민은 그 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였다. 따라서 미국 사회의 인종 및 종족적 구성의 비율이 이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와같은 변화에 발 맞추어 미국 사회에 있어서 민족 집단간의 관계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표 3〉은 1965년 새 이민법 발효 이후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크게 감소한 반면 세계의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중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은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북미, 기타에 포함되어 있

〈표 3〉 지역별 미국이민의 비율 변화, 1955-1988

(단위: %)

지 역	1955-1964	1965-1974	1975-1984	1985	1986	1987	19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 럽	50.2	29.8	13.4	11.1	10.4	10.2	10.1
북부 및 서부	28.6	11.0	5.2	5.0	5.0	5.2	5.1
남부 및 동부	21.6	18.7	8.1	6.0	5.4	5.0	5.0
아 시 아	7.7	22.4	43.3	46.4	44.6	42.8	41.1
아프리카	.7	1.5	2.4	3.0	2.9	2.9	2.9
오세아니아	.4	.7	.8	.7	.6	.7	.6
북 미 주	36.0	39.6	33.6	31.9	34.5	36.0	38.9
카리브지역	7.1	18.0	15.1	14.6	16.9	17.1	17.5
중 미	2.5	2.6	3.7	4.6	4.7	4.9	4.8
북미, 기타	26.4	19.0	14.8	12.7	12.9	14.0	16.6
남 미	5.1	6.0	6.6	6.9	7.0	7.4	6.4

출처 : Annual Reports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연도별 자료)

는 카나다의 이민은 줄어든 만큼 멕시코의 이민이 크게 늘었고 카리브지역으로부터의 이민 역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오늘날 미국으로의 이민은 80% 이상이 동양계와 히스패닉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이민의 물결은 미국을 진정한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 백년 동안의 미국이민은 유럽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민족구성 비율의 변화는 매우 천천히 이루어 질 것이다. 〈표 4〉에 의하면 서기 2020년에 이르러서도 미국은 여전히 백인집단이 69.5%로 최대의 집단으로 남

〈표 4〉 미국 인구의 인종별 분포

(단위: %)

인종 (종족)	1987년 인구조사	2020년 미국인구 (미국 인구통계국 예측)
백인(히스패닉 제외)	77.6	69.5
흑 인	12.1	14.3
히스패닉	7.9	11.1
동양인과 기타	2.4	5.1
합 계	100.0	100.0

출처 : Tucker, Robert, W. and Charles B. Keely, and Linda Wrigley (eds.), 1990, *Immigration and U. S. Foreign Policy*.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p. 10.

아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 4〉는 동시에 히스패닉과 동양계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어 점차 그들의 잠재력을 과시하게 될 것을 시사해 준다.

이상과 같은 변화를 고려한다면 미국사회의 민족관계를 단순히 어느 한 중심집단과 여타의 동화되어 갈 집단으로 보는 단순한 관점보다는 차라리 다양한 민족집단이(이민을 온 역사적 과정에서) 각각 어떠한 조건하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민족집단의 다양한 이민의 경험을 설명해 주는 이론은 많다. 이제 이 다음 절에서는 그러한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민족간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이론

이민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갖는 민족 또는 인종집단 간의 접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집단들이 접촉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협동, 경쟁, 갈등, 격리, 동화, 다원주의 등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중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민족간 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개념은 '동화(assimilation)' '다원주의(pluralism)', 그리고 '갈등(conflict)'으로서, 이들은 각각 다른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바로 그 세 개의 이론은 동화이론, 문화적 다원주의, 그리고 민족갈등이론으로서 오늘날 민족이나 인종관계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학설들로 알려져 있다(Hraba, 1979)

1.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

집단간의 관계는 집단의 이동에 의한 접촉에서 연유된다. 로버트 파크(Robert E. Park)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민집단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접촉(contact)→경쟁(competition)→조정(accommadation)→동화(assimilation)의 과정을 겪는다고 주장하였다. 1920년대 미국 사회학계의 주요 학파로 등장한 시카고학파를 이끈 로버트 파크(1921 : 1939)는 특히 대량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이민들이 미국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동화되는가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에 의하면 동화의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며 편견, 차별, 갈등과 같은 장애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새로운 이민 집단은 미국의 공동적 문화생활(common cultural life)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류 문화에 동화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파크는 그의 제자 루이스 워스(Louis Wirth)와 함께 이민집단들의 격리된 생활영역(ethnic enclaves)을 확인하였으나 그것을 단지 궁극적인 동화에 이르는 한 단계로 간주하였다.

시카고 학파의 영향을 받았던 인류학자 워너(W. Lloyd Warner)와 그의 동료들은

다양한 민족집단의 동화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일련의 연구를 행하였는데, 그들은 다양한 이민집단의 사회적 상승이동을 미국사회에의 성공적 적응과 문화적 동화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표 5〉 양키市의 직업적 지위의 지표, 1850-1933

집단 \ 연도	1850	1864	1873	1883	1893	1903	1913	1923	1933
아이리쉬	1.62	1.76	1.74	1.76	1.84	1.94	2.14	2.31	2.52
프랑스계카나다인					1.95	2.10	2.14	2.23	2.24
유 태 인							3.10	3.22	3.32
이탈리안							2.32	2.29	2.28
알메니안							2.46	2.51	2.56
그리스인								2.53	2.34
폴란드인								1.18	1.97
러시아인									1.95

〈표 6〉 양키市의 8개 집단의 거주 지위의 지표, 1850-1933

집단 \ 연도	1850	1864	1873	1883	1893	1903	1913	1923	1933
아이리쉬	1.70	1.95	2.11	2.11	2.12	2.22	2.37	2.57	2.85
프랑스계카나다인					1.67	1.78	1.77	2.13	2.43
유 태 인							1.93	2.14	2.77
이탈리안								2.21	2.38
알메니안								2.39	2.57
그리스인								2.40	2.54
폴란드인								1.25	1.40
러시아인									1.32

출처 : Warner, W. LIoyd and Leo Srole, 1945. *The Social Systems of American Ethnic Groups.*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표 5〉과 〈표 6〉는 워너와 그 동료가 양키시티(Yankee city)라고 가명을 사용한 마사츄세츠 주의 뉴버리포트(Newburyport)에 있어서 8개 이민집단의 사회적 이동에 관한 경험적 자료이다. 두 표에서 모두 보다 높은 점수는 더 나은 직업적 지위와 거주지역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바, 이민집단은 거의 예외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적 상승이동을 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워너와 그 동료들은 이민집단은 미국사회의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해감으로써, 결국은 미국사회의 주류

에 동화되어 갈 것이라는 생각을 굳혔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오래된 도시(the Old City)'라고 칭한 남부 미시시피의 나체즈(Natchez, Mississippi)에서의 조사자료는 흑인집단의 사회적 상승이동은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차라리 흑·백인종간의 카스트적 분화가 발견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워너는 이와 같은 현상은 흑인집단의 이주가 원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고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동화의 속도가 느리고 매우 고통스럽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스웨덴의 사회학자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 1944)이 그랬던 것처럼 흑인집단도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중심적 문화에 동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동화이론을 더욱 정교화시킨 사람은 밀톤 고돈(Milton Gordon, 1964)이라 할 수 있다. 고돈은 미국사회의 중심세력이 앵글로-색슨계의 백인 신교도집단(WASP)이 주류를 이루는 중산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새로운 이민집단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준거로 삼고 적응해야 할 목표는 바로 이들 중심세력의 문화와 생활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앵글로 문화로의 동화(Anglo-conformity)라고 불렀다. 고돈에 따르면, 다양한 이민집단의 동화과정은 다시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첫번째 단계는 이민이 미국의 언어 및 문화적 관습을 터득해가는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이고, 두번째 단계는 이민이 새로운 사회의 클럽, 조직, 제도 등에서 일차적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이며, 세번째 단계는 이민집단과 기존집단간의 결혼이 거부감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결혼동화(marital assimilation), 네번째 단계는 이민집단 고유의 민족 정체성이 소멸되어 이주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정체감을 갖게 되는 정체성 동화(identificational assimilation), 다섯번째 단계는 이민집단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게 되는 태도수용적 동화(attitude receptional assimilation), 여섯번째 단계는 이제 차별적 행위가 사라지는 행위수용적 동화(behavior receptional assimilation),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가치나 권력갈등이 없고 일상생활에 전혀 구별이 없는 시민적 동화(civic assimi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돈이 제시하고 있는 이민집단의 동화단계는 백인 이민, 특히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집단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적 동화단계를 지나치게 당연시함으로 해서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문화접변(acculturation) 과정의 복잡성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돈이 연구한 미국의 다양한 이민집단들의 경우, 앞서 언급된 일곱 단계의 동화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드물다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특히 동화이론은 소위 '도가니 이론'(melting-pot theory)으로 분류되는 바 나중에 Novak(1971) 등에 의하여 제시된 '동화되지 않는 민족들'(unmeltable ethnics)에 관한 논쟁은 동화이론을 보완 또는 대치할

수 있는 이론의 필요성을 암시해 준다.

2.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동화주의자들이 미국사회를 보는 기본적 관점은 현대 사회란 산업사회 및 대중사회로서 근대화의 영향 때문에 민족 또는 인종집단은 점차 사회적 중요성이 감소되고, 그 결과 다양한 이민집단들은 궁극적으로 공통의 생활문화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이론은 동화주의자들과 공통점을 보인다. 즉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하면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가족, 지역, 종족, 인종, 국가 등에 대한 전통적 충성심이 계급에 대한 충성심으로 대체된다고 봄으로써 민족이나 인종간의 계급을 통한 동화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련과 동구의 붕괴과정에서 보여준 민족문제의 재등장은 계급을 통한 동화가 그리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동화이론은 미국사회에 있어서 특정 백인집단의 지배를 합리화해주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동화주의자들과 달리, 문화적 다원주의(또는 민족다원주의 : ethnic pluralism)를 주창하는 학자들은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도 민족집단은 중요한 단위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물론 민족집단 또는 인종집단은 변모되어가지만 그것들은 현대사회에서도 사회적 정체감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타집단과의 자원경쟁을 위한 발판으로서 중요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찌기 문화적 다원주의를 주창한 캘렌(Kallen, 1924)은 이민집단이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개개인들의 정체성과 존엄성의 유지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사회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미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민족간의 민주주의(democracy of nationalities)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다원주의적 관점을 대표해주는 학자로 나탄 글레이저(Nathan Glazer)와 패트릭 모이니한(Patrick Moynihan)을 꼽을 수 있다. 그들은 1963년 처음 출간된 「도가니를 넘어서」(*Beyond the Melting Pot*)에서 뉴욕시의 이탈리안, 아이리쉬, 유태인, 푸에르토리코인, 그리고 흑인집단의 동화와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이민들 중 (특히 유럽계 이민들의 경우) 이민 제 3세대에 이르면 이민 당시 가져온 고유한 문화적 관습을 거의 상실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단들과 구분되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으로의 이민집단들의 적응과정이 단순한 동화가 아닌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들은 같은 책의 1970년도 수정판에서 1960년대의 종족성의 부활(resurgence of ethnicity)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첫째, 미국사회에

서 직업적 정체성이 지위와 존경의 지표로서의 기능을 잃어감에 따라 민족적 정체성이 개인들의 사회적 정체감을 확인해주는 기능을 되찾게 되었다. 둘째, 1960년대 활발하게 전개된 민권운동은 보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그것은 문화적 다원주의의 발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뉴욕의 경우 1960년대 크게 불어난 푸에르토리코인들과 남부흑인들의 대량 이주는 소수민족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켰다(물론 민족정체감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뉴욕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아이리쉬 등도 활발히 이용해온 것이었지만 그것이 1960년대에 들어서 더욱 활발히 공개적으로 전면에 부상하였다). 이것은 다시 다양한 집단사이에 민족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도록 유도하였다.

다양한 이민집단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언어나 정치적 영역에서 미국 주류사회의 제도에 편입됨으로 해서 문화적 동화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은 집단적인 수준에서는 바뀌지 않는 각 민족의 이름 따위가 존재함으로 해서 다른 집단과는 구분되는 집단 정체감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글레이저와 모이니한은 "이민집단은 (미국사회라는 용광로에) 용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transformed) 것"이라고 말했다.

인류학자 프레드릭 바스(Fredrik Barth, 1969) 역시 급격한 인구이동 · 접촉 · 사회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는 민족적 정체성의 존재에 주목하고, 종족성(ethnicity)의 올바른 연구는 종족(또는 민족) 간 범주 또는 경계(ethnic boundaries)를 밝혀내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바스의 지적은 1970년대 인류학의 '새로운 종족성 연구학파(New Ethnicity School)'의 방법론적 초점이 되었다.

미국사회에 있어서 민족적 다원주의 또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반영해주는 자료는 많다. 예를 들면, 이민집단들은 흔히 한 지역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에 연유한 거주지역의 분리현상(residential segregation)은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지속된다는 조사들이 있다. 게스트와 위드(Guest and Weed, 1976)는 미국의 동부, 중부, 서부의 도시들에서의 이민집단 간 거주지역 분리현상의 유형을 역사적,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는 바 20세기에 들어서 거주 지역의 교외 확산(suburbanization)으로 엄청난 인구의 지역적 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아직도 민족집단 간 거주지역 분리현상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민족집단 간의 거주지역 분리가 없는 지역에서도 수틀스(Gerald Suttles, 1968)는 시카고의 다민족 거주지역의 연구에서 다양한 이민집단들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서로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문화적 다원주의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일반적 경향은 개별조사에서 발견되는 모순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민 1세대에서는

출신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에 집착하는데 비하여, 제 2세대에 이르면 자기 조상의 출신을 부정하고 미국사회와 문화에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제 3세대에서는 다시 자신의 뿌리를 재발견하려고 한다(이것이 역사학자 한슨(Hanson)의 명구 "아들(2세)이 잊으려 하는 것을 손자(3세)는 다시 기억하려 한다"이다). 이는 이민 제 3세대는 미국에서 출생하였고 언어의 문제도 없기에 문화적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흔히 해석되고 있다. 둘째, 미국사회에 있어서 민족적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은 (한 이민집단의 대량이민이 종식된 다음에 흔히 민족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예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미국이 개방적임과 동시에 사회·지리적 이동이 극심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방성과 이동성을 감안한다면 문화적 전통, 역사적 경험, 인종적 특성 등을 공유하는 동일 이민집단(즉 민족)만큼 변치않는 준거를 제공해 주는 사회단위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민족적 정체성의 추구는 현대 대중사회에 있어서 개개인들이 자신의 준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적 다원주의의 시각은 동화주의자들이 미국 사회내의 민족간 관계를 단순한 일면적 과정으로 파악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의 복합적 성격을 규명해보려 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만 하다. 그러나 문화적 다원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민족간의 평등한 공존이 과연 미국사회의 현실을 냉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문화적 다원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은 그들이 문화적 소수민족들(cultural minority 또는 ethnic minorities)을 인종적 소수민족(racial minorities)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집중되고 있다(Omi and Winant, 1994 : 20).

미국의 민족문제를 ethnicity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는 관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집단들의 범주나 관계를 문화적 요인을 통하여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미국의 이민집단을 나눌 때 흑인들에게는 이러한 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태리계 미국인(Italian-American), 폴란드계 미국인(Polish-American), 아일랜드계 미국인(Irish-American) 등의 표현은 보편화되어 있으나 유럽계 미국인(European-American)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흑인의 경우 그들의 원 출신지를 명시해서 호칭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다. 흑인은 그냥 흑인계 미국인(Black-American)이거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Afro-American)으로 불리워진다. 이는 흑인집단에게는 아프리카 각국, 또는 각 부족이 갖는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검다는 데 기초한) 인종적 구분만이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문화적 다원주의의 접근은 그 출발부터 흑인집단에 대한 편견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설명방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3. 민족간 갈등이론(Ethnic Conflict Theory)

갈등이론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원을 둘러싼 집단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화주의자들의 경우 사회의 근대화가 가져온 기회의 증대는 집단간의 협동 내지 거대조직 내에서의 상호적응을 자극할 것으로 생각한 것과는 달리, 갈등론적 관점은 산업사회의 다양한 기회의 증대가 차라리 그것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갈등론자들은 또한 다양한 이민집단 간의 민주주의적이고 평화적인 공존을 전제로 깔고 있는 문화적 다원주의의 입장과는 달리, 이민집단간의 (정치·경제적) 지배·복종과 불평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는다. 왜냐하면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은 실제 또는 가상의 경쟁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집단간 계층화가 촉진되고 불평등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집단간의 불평등, 갈등, 착취 등의 관계는 특히 흑·백집단을 비교연구한 학자들에 의하여 일찌기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이론화를 시도한 초기의 학자는 올리버 콕스(Oliver C. Cox, 1948)였다. 그 자신이 흑인인 콕스는 미국사회에 있어서 흑인의 지위는 하나의 카스트처럼 완전한 예속과 착취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불평등의 제도화는 이윤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 확산에 기인한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소수 민족집단에 대한 착취는 문화적 편견 따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동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미국사회의 흑인문제는 그 본질이 서구의 식민주의적 팽창과 자본주의의 발달에 뿌리를 둔 역사적 전개과정에 비추어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콕스에 의하여 제시된 문제의식은 비록 그것이 흑인과 백인집단의 관계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맑스주의적 접근의 기초를 닦아줌으로 해서 미국의 민족문제를 계급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한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내국 식민지이론(Internal Colonialism), 노동시장 분할이론(The Split-Labor Market theory), 중개인이론(Middleman minorities)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내국 식민지이론은 미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팽창과정에서 미국의 원주민(Indians)에 대한 약탈, 흑인의 노예화, 그리고 멕시코와의 영토분쟁 등을 통하여 불평등한 인종관계를 정착시켜온 역사적 경험을 강조한다. 그래서 특히 인디언, 흑인, 그리고 멕시코계의 민족집단의 미국사회내에서 처해 있는 상황은 특수한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집단과는 다른 이론적 틀을 가지고 이들과 민족집단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분할이론(The Split-Labor Market theory)은 미국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소수민족의 노동자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이유를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민족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

여 노동시장을 나누어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Bonacich, 1972). 즉 이 이론은 인종적 소수민족 집단이 노동시장에서 특히 차별적인 대우를 감수하고 있는 데에 주목한다. 자본(capital)의 입장에서 보면 싼 노동(cheap labor)에 대하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노동(labor)의 관점에서는 종속적인 집단의 싼 노동은 위협이 된다. 미국사회는 이와 같이 노동시장이 백인의 기득권 집단과 인종적 소수민족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어 노동부문의 두 집단간 갈등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 민족집단간의 관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하여야 되며, 이들의 관계는 갈등관계인 것이다. 중개인이론은 특정 이민집단이 미국사회 전체의 경제구조에 있어서 지배적인 집단(백인 자본가계급)과 피지배적인 집단(소수민족, 종속계급) 사이의 공백 영역을 메꾸어 줌으로써 일정한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양 계급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한 중개집단의 대표적 보기는 과거 유태인이나 일본인들로서 그들은 지배적 백인집단이 공백으로 남겨준 직업들에 종사함으로 해서(대체로 쁘띠 부르조아지) 양대 계급의 중간계층을 점하였으나, 이들은 그들이 처한 특수한 위치때문에 양쪽으로부터 공격과 비난의 화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유태인 자영업자는 부유한 앵글로 색슨으로부터는 두려운 경쟁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배척받음과 동시에 흑인들로부터는 자신들의 보잘 것 없는 부를 가져가는 상인집단으로서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Bonacich, 1973).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여러 대도시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한·흑간 갈등의 노증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등이론은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그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즉, 갈등이론은 모두 이민집단간의 불평등 현상에 주목하고 그러한 불평등의 근원을 미국의 경제구조와 경제과정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집단이 개별적으로 볼 때 문화적 동화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집단간의 관계는 뿌리깊은 불평등 때문에 조화가 아닌 경쟁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화주의, 다원주의, 갈등이론을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동화, 다원주의, 그리고 갈등의 양상이 언제나 상호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병존하여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다원주의적 양상도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새로운 이민집단이 격리되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문화적 동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를 통한 경제의 성장은 대중교육과 화이트칼라 직업을 확산시킴으로써 집단간 동화를 촉진하는 기회를 증대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러한 사회적 상승이동 경로를 둘러싼 집단간의 경쟁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이

론은 서로 대립된다기 보다는 복합사회의 여러 집단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Ⅳ. 민족간 관계의 구조

1. 문화적 소수민족과 인종적 소수민족 : 적응과 불평등

미국사회에 있어서 민족 및 인종관계의 유형은 시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천하였다. 서구인들이 신대륙이라 불렀던 북미주로의 대량 이주가 시작된 이래 정복자, 노예수입자, 또는 자발적 이민 등 그 이동의 동기나 유형 역시 다양하였기에 상이한 집단간의 접촉상황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즉 서로 다른 집단들은 적대적인 대량학살, 배척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공존·공생하는 관계, 또는 위계적 서열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대량학살이나 배척관계는 초기의 백인집단과 북미주 원주민들, 흑인노예집단, 그리고 초기의 비(非)서구이민들간의 관계를 꼽을 수 있고, 공존관계는 영국의 앵글로색슨과 스코틀랜드인, 그리고 서열관계는 서·북유럽인과 남·동부유럽인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유형은 미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여러 형태의 적응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다양한 관계유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죠 페아진(Joe R.Feagin, 1984)은 그것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 유형은 배척과 소외이며, 둘째는 공존, 셋째는 앵글로문화로의 동화(Anglo-conformity), 넷째는 다원주의, 그리고 다섯째 유형은 위계적 서열관계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의 다양한 민족집단 간에 관찰되고 있는 상이한 관계유형들은 각각의 이민집단들의 특성과 이민의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른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인종문제는 그 양상이 매우 복합적인 것이긴 하지만 미국의 역사를 분석해 보면 미국 민족문제의 핵심은 인종차별주의(racism)와 불평등(inequality)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700년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기에도 버지니아, 펜실바니아, 로드아일랜드 등지에서는 영국계 이외의 이민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편견은 백인 이외의 다른 인종집단에는 더욱 그 위력을 발휘하여 미국이 독립국가로 등장할 때 마련한 국가의 기본 문서에도 반영되었다. 즉, 토마스 제퍼슨이 입안한 독립선언문의 초안에는 영국의 죠지국왕의 노예제에 대한 묵인과 동의를 비판하는 구절이 있었으나 노예제도를 필요로 한 남부 대지주들과 북부의 노예중개상들의 압력때문에 독립선언문의 최종본에서는 그 부분이 삭제되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혁명의 시기에 있어서도 만인은 자유라는 원칙(doctrine of liberty)이 흑인집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신생 미국의 헌법에도 인종간의 위계(굴종)가 드러났다. 원래 헌법 제 1조는 지역의 의원수와 세금의 배분을 위해 인구를 고려할 때 흑인의 경우는 그 숫자의 5분의 3을 계산한다고 명시하였고, 그 부대 조항에서는 1808년까지 노예거래를 허용하며, 도망간 노예는 그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표현을 기록으로 남겼다. 독립선언문에 포함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All men are created equal)"는 원칙과 헌법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은 백인들에게만 적용될 뿐 그 당시 인구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흑인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오직 흑인만이 차별과 편견의 대상인 것은 아니었다. 점차로 불어난 비(非)영국계 이민들 역시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18세기 말, 아일랜드, 독일, 그리고 프랑스로부터의 이민이 크게 증가하자 그러한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귀화법(The Naturalization Act)은 미국시민이 되기 위하여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4년으로 연장하였고, 외국인법(Alien Act)은 대통령에게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모든 법안들은 물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영국계 이민들이 중심이 되어 제정된 것이었다.

미국 이민의 역사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870년대까지는 미국정부는 이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민의 질적 요소를 고려한 제한을 두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범죄자, 계약노동자, 그리고 중국인들의 이민을 규제한 것이 좋은 보기이다. 1921년에는 드디어 이민의 양적 제한을 두기 시작함으로써 이민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즉, 연도별 쿼터제(national-origins quota system 1921 ; 1924년)가 실시된 것이다. 이때에도 이미 자리를 잡은 이민집단들의 기득권을 고려하여 미국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및 친족은 예외적으로 취급되었다. 1921년 개정된 이민법이 겨냥한 이민의 양적 제한은 이미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주로 비서구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에 다분히 인종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흑인과 원주민의 차별에서 기원된 인종차별주의는 문화를 달리하는 백인들간의 차별로 이어졌고, 그러한 점에서 인종과 종족사이에 생의 기회(life chance)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상은 미국사회의 움직일 수 없는 현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미국의 이민사를 통하여 많은 비(非) 영국계 집단들은 그러한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 점차 미국사회의 주류에 합류해 갔다. 독일계, 아일랜드계, 스칸디나비아계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들은 모두 유럽으로부터 이민온 사람들로서 인종적으로는 백인집단이고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인종적 소수민족(racial minority)이 아닌 문화

적 또는 종족적 소수민족(ethnic minority)라고 미국의 학자들은 구분하기도 한다.

유럽계 이민과는 달리 흑인과 원주민, 그리고 몇몇 인종적 소수집단(racial minority)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예속되거나 차별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중적 구조, 즉 성공적 적응(adaptation)과 예속적 불평등의 감수(stratification)가 다양한 민족간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중적 구조는 결국 유럽계 이민과 그 이외의 집단이 서로 다른 경험과 적응과정을 겪어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으로는 미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동화되거나(melting-pot theory) 또는 조화를 이루어내는(salad-bowl theory) 유럽계 이민이 있는가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동화될 수 없는 민족들'(unmeltable ethnics)로 불리면서 아직도 사회 · 경제적으로 열등한 처지에 놓여있는 흑인, 원주민, 그리고 멕시코계 이민 등이 있다. 동화론자들이 주장했던 '도가니이론'은 주로 유럽계 이민들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이민의 적응과정은 초기의 어려움과 차별대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극복하고 결국 미국 주류사회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터득함으로써 사회 · 경제적 상승이동을 통하여 미국사회에 통합되어간다는 것이다. 확실히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대량으로 있었던 구라파로부터의 이민들(독일인, 아일랜드인, 북구인, 이태리인, 유태인, 폴란드인)의 적응과정은 개별 집단들이 겪었던 경험과 적응과정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화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명방식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다원주의론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민주주의적 공존'은 사실 캘렌(Kallen, 1924)이 말한 소위 '대서양 이민'(the Atlantic migration)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인종적 소수민족, 즉 흑인, 멕시코인, 인디언, 그리고 동양인들의 역사적 경험 밖에 있는 이론이었다. 그래서 오미와 위난트(Michael Omi와 Howard Winant, 1994)는 ethnicity와 ethnic group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종적 소수민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등장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근래에 부각되고 있는 소수민족집단의 새로운 정체성들은 모두 '인종적 구분'을 반영하는 것들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Afro-Americans), 히스패닉계 미국인(Hispanic Americans), 원주민계 미국인(Native Americans),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Asian Americans)은 사실 미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흑인, 갈색인, 홍인, 그리고 황인종(blacks, browns, reds, and yellows)의 구분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유럽계 백인들의 경우에는 이태리계 미국인(Italian Americans), 폴란드계 미국인(Polish Americans), 아일랜드계 미국인(Irish Americans)과 같이 문화적 범주를 기반으로 한 구분이 있을 뿐 이들 전체를 묶어주는 정체성 범주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종족과 부족이 있고 인디안의 경우 많은 종족과 부족이 절멸되었음에도 수많은 하위집단들로

나뉘어진다. 히스패닉계는 멕시코계, 푸에르토리코계, 쿠바계, 남미계 등을 포함하며 아시아계는 2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묶은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때로는 이질적인 집단들이 하나의 단위로서 정체감을 갖게 된 배경에는 미국사회(미국의 주류를 이루는 집단)가 이들을 주로 인종적 범주에 따라 구별하고 대접하기 때문인 것이다.

인종적 소수 민족집단에 있어서도 영어의 사용과 표준화된 교육 등 앵글로 문화로의 동화가 요구되었으므로 문화적 동화에 대한 압력은 미국내의 모든 민족집단이 공유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동화(고돈이 말한 구조적 동화 : structural assimilation)는 미국사회의 주류집단의 동의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인종적 소수민족집단의 현실은 페아진(Feagin, 1984)이 말한 것처럼, '일정 부분의 문화적 동화에 사회구조상 하층으로의 강요된 통합'이 적절한 묘사일 것이다. 따라서 통합이 강요된 성격을 갖는다면 집단간의 관계는 억압, 반목, 갈등의 요소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게 된다.

2. 민족집단간의 차이

미국사회의 다양한 민족집단들은 지역적 분포, 소득, 실업율, 그리고 심지어 범죄율 등에 있어서 각각 특유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집단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올 때의 제반 사정 및 각 집단의 특성, 그리고 일련의 역사적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각 민족집단간의 관계와 각 집단이 미국 사회구조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반영해 준다. 지역적 분포를 예로 들면, 흑인은 대단위농장이 많았던 남부에, 아일랜드, 이태리 유태계는 그들이 무일푼으로 처음 도착했던 동부지역의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정착하였다. 동양인은 압도적인 다수가 서부 태평양 연안 주들에 거주하며, 멕시코계는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택사스에 이르는 서남부 주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북구계 집단은 미국의 중서부지역에 많고 쿠바인들은 대다수가 플로리다에,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주로 뉴욕 부근에 몰려있다. 미국은 광활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지역적 분포의 차이가 각 집단의 적응과정이나 소득 따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의 고려 요인일 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차라리 이주 당시, 각 집단의 교육수준, 경제적 여건, 이민의 조건과 상황 등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이민의 상황은 몇몇 집단의 초기 적응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후에 집단의 미국사회구조상의 위치 결정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이민의 종류는 ① 노예와 같은 강제 이주, ② 강제노동, ③ 계약노

동, ④ 난민, 그리고 ⑤ 자발적 이민으로 나눌 수 있는 바, 흑인의 경우는 노예로서 왔고, 초기의 중국이민은 계약노동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강제노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아이리쉬 농민은 주로 계약노동자로의 이민이 주종을 이루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인은 1970년대에 주로 난민으로 이주해 왔고, 초기의 유럽이민의 대부분과 1965년 이후의 동양계이민 등은 자발적 이민들이었다. 이러한 이민의 유형상의 차이는 각 집단이 이민올 당시 갖출 수 있었던 자원에 있어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 이주 후 부여된 자율적 의사결정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미국사회내에서의 적응양상이 크게 달라지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하튼 각 집단들이 과거에 보여주었고 또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차이점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수많은 요인들이 역사과정을 통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이제 각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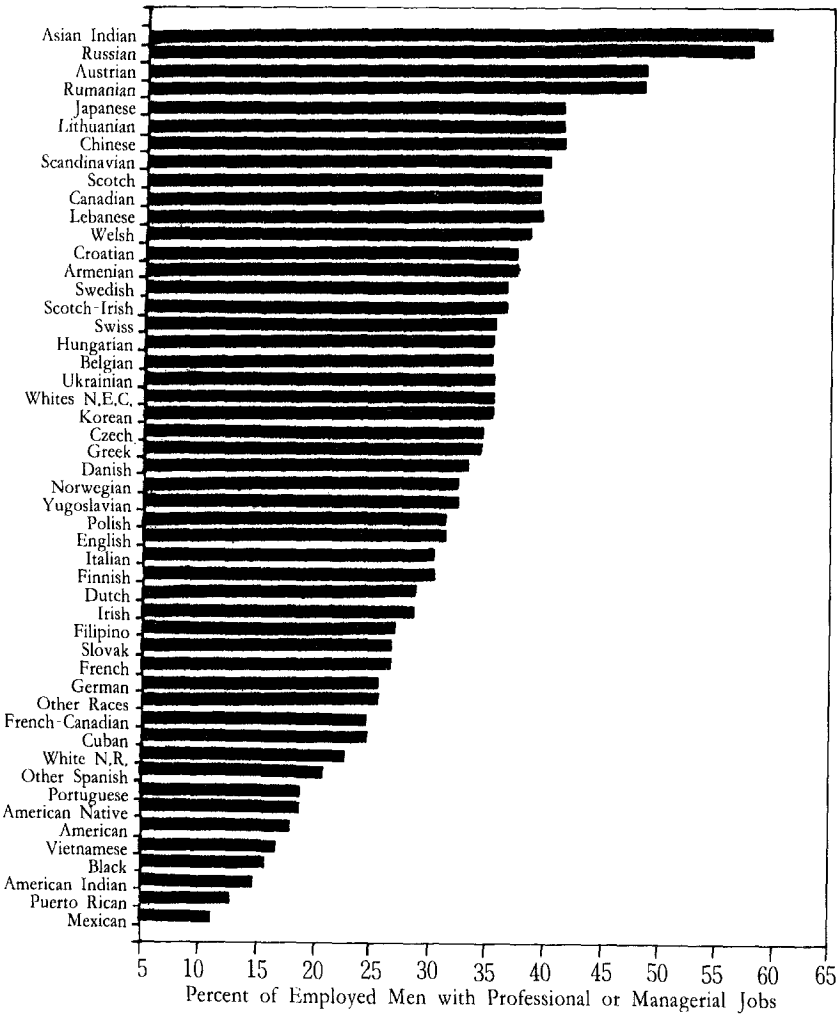
〈표 7〉 가계수입의 집단별 비교

집 단	가계수입 지표(미국평균 = 100)
유 태 인	172
일 본 인	132
폴 란 드 인	115
중 국 인	112
이 태 리 인	112
독 일 인	107
앵글로-색슨	107
아일랜드인	103
미 국 전 체	100
필 리 핀 인	99
서 인 도 인	94
멕 시 코 인	76
푸에르토리코인	63
흑 인	62
인 디 언	60

출처 : Sowell, Thomas, 1981, *Ethnic America : A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p.5.

〈표 7〉은 몇몇 민족집단의 가계수입을 비교한 것이다. 〈표 7〉에 따르면, 미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집단은 모두 예외 없이 인종적 소수집단이고 특히 멕시코인, 푸에르토리코인, 흑인, 그리고 인디언의 가계수입은 전국평균을 크게 밑도는 최하위 그룹

〈그림 1〉 성인남자(25세-64세) 중 전문직/관리직 직업 종사자의 비율



〈참고〉 여기에서 사용된 민족집단 분류는 1980년 미국 인구조사때 사용된 범주이다. 따라서 몇 범주는 기술적 용어로 처리되었기에 모든 용어를 그냥 영어로 표기하기로 한다(Whites N.E.C. : 다른 범주에 분류되지 않은 백인 ; White N.R. : 보고되지 않은 백인 ; American : 백인 중 민족 소속을 밝히지 않은 자 ; American Natives : 알라스카 에스키모를 포함하는 인디언 ; American Indian : 백인과의 혼혈).

〈출처〉 Farley, Reynolds, 1993. "The Common Destiny of Blacks and Whites : Observations about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the Races." in Herbert Hill & James E. Jones, Jr.(eds.), *Race in America : The Struggle for Equality*. Madison, WI :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224.

을 형성하고 있다. 흥미있는 것은 인종적 소수집단이면서도 일본과 중국계의 경우, 가계수입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 크게 바뀌어진 사회적 상황을 동양계 이민이 비교적 잘 이용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동양계 이민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 예컨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을 동시에 반영해 주는 지표로 직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특히 전문직/관리직 범주는 상대적으로 가장 장기간의 교육과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군으로 흔히 분류된다. 〈그림 1〉은 미국의 인구통계국에 의해서 가장 위세가 높은 직업군으로 분류된 전문직/관리직에 다양한 민족집단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도표이다. 이 도표는 1980년도 인구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각 민족 집단 내의 25세-64세 성인남자 중 전문직/관리직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유럽과 아시아계 집단 성인남자 중 25-40%가 전문직/관리직 직업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 러시아,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중국, 그리고 일본계 집단 등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 인도와 러시아계의 경우, 그것은 60%를 웃도는 것이어서 이들 집단의 이민은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선택적인 이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집단과는 정반대로 전문직/관리직 직업 범주에 있어서도 역시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칸 인디언, 그리고 흑인집단이 최하위에 머물러 그들이 미국사회의 직업구조상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표 8〉은 최근 이민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이민집단을 비교해 본 것이다. 이 자료는 1970-80년 사이 이민의 자료이기 때문에 〈표 7〉의 자료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지만 영국계 및 인도와 필리핀계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은 그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는 한국과 중국이민의 소득도 이민 전체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에 반해,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과 같은 유럽계 백인집단들은 그들의 교육수준이 낮으며 영어사용 능력도 남미계나 히스패닉계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득은 이민 전체평균 보다 높다. 또한 도미니카, 하이티와 같이 인종적으로 흑인계열에 속하는 집단과 멕시코계 집단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는데, 그들은 동시에 교육수준도 낮고 언어능력도 부족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통계자료들은 미국사회에 있어서 유럽계 이민집단과 비유럽계 이민집단 간에 사회·경제적 특성상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소위 문화적(또는 종족적) 소수민족(ethnic minorities)과 인종적 소수민족(racial minorities)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미국의 민족문제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

〈표 8〉 최근 이민 집단간의 평균적 차이의 비교

구 분	가계수입 (중위치)	연 령 (중위치)	가족수 (평균)	35-44세여인 출산아수 (1,000명당)	25세 이상 성인중 대학 졸업자(%)	캘리포니아 거주(선택)	집에서 영어만사용 (%)
인구전체	$19,917	31.3	3.27	2,639	16.2	11.0	82.00
이민전체	$15,224	27.4	3.81	2,571	22.2	26.8	13.00
그 리 스	$16,204	30.4	3.60	1,930	10.6	11.1	2.80
이 태 리	$18,418	30.5	3.79	2,480	8.3	9.3	3.20
폴 투 칼	$18,939	28.7	3.84	2,550	2.8	31.2	1.00
영 국	$25,431	29.5	3.20	1,940	30.5	9.9	83.50
중 국	$15,237	37.0	3.86	2,390	27.6	38.2	1.00
인 도	$23,935	29.8	3.48	2,070	63.1	15.7	6.60
한 국	$18,342	27.5	3.85	2,100	31.6	27.4	8.40
필 리 핀	$24,480	31.1	4.04	2,010	47.9	43.8	3.40
월남1970-74	$12,026	22.3	4.78	3,660	11.2	31.9	1.90
월남1975-80	$15,077	27.3	3.58	2,440	18.5	31.9	16.40
카 나 다	$23,910	25.9	3.17	2,040	30.0	27.4	65.00
쿠 바	$14,510	40.3	3.43	1,970	10.3	8.0	0.80
도미니카	$ 9,569	26.0	3.70	3,010	3.4	1.0	0.90
하 이 티	$11,966	28.9	3.81	2,740	9.5	1.7	2.10
자마이카	$16,094	26.6	3.73	2,690	9.7	4.5	8.50
멕 시 코	$11,732	23.6	4.39	4,340	2.7	43.4	0.80
남 미	$14,795	27.6	3.58	2,180	18.3	17.4	13.20
아프리카	$15,109	27.8	3.36	2,220	43.3	10.6	16.90

출처 : James V. Koch, 1987, "The incomes of recent immigrant : A look at ethnic differences". *Social Science Quarterly* 68 : 2 : 299.

받침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종적 소수민족 중 동양계 몇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미국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설명을 요하고 있다.

인종적 소수민족 중 예외적으로 보이는 동양계 이민집단의 '성공담'은 사실 그 역사가 그리 오랜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이민은 19세기 말의 '중국인 배척법'과 제2차 대전 중 일본인의 강제수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혹한 차

별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성공'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그것은 상당한 댓가를 치룬 '성공'임을 알게 된다. 가계소득의 예를 들면, 동양계 이민의 그것은 더 많은 가족원이 백인이나 그외 집단들의 평균보다 훨씬 오랜 시간의 노동을 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동양계 이민집단은 평균적으로 백인집단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사실, 동양계 이민은 가장 높은 학력수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인적 전문직 이외의 정부나 일류 기업의 관리직에는 많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Takaki, 1993 참조). 이상과 같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동양계 이민집단의 사례를 예외적으로 취급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종적 소수집단 사이에도 장차 보다 뚜렷한 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미국의 민족문제는 미국이 이민에 의하여 형성된 국가이기때문에 연유된 것이므로 이민과 관련하여 미국사회를 보는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를 상정해 봄으로써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립되는 축의 한 극점에는 ① 미국사회는 모든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사회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반대편의 극점에는 ② 미국사회는 그 역사를 통하여 인종적 편견과 배타적 속성이 그 근본에 깔려있다는 견해가 있다. 첫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은 미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민의 문을 넓게 열어놓고 있는 개방적인 사회임을 지적한다. 미국에서 최근 받아들이고 있는 이민의 수는 연간 대략 60만 내지 70만에 달하는 숫자로서 이는 세계 165개 국에서 수용하고 있는 전체 이민의 수가 연간 백만명 가량임을 생각하면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두번째 견해는 미국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세력을 앵글로 색슨과 같은 백인집단으로 보고 여타의 민족과 인종을 주변적 또는 종속적 집단으로 보는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은 흑인, 인디언, 멕시코계 이민집단 등에 대한 탄압과 차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위에서 언급된 상반된 견해는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관점들로서 미국사회의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쩌면 그러한 극단적 견해는 모두 미국사회의 현실의 일부만을 지적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실, 이 두 가지 입장은 미국사회의 역사적 현실의 일면을 각각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으로의 대량 이민은 폭발적으로 계속되었으

나 1965년 새 이민법이 제정되기까지 그 문호는 오직 대서양 쪽으로만 개방되어 있었다.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좇아 찾아드는 이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던 '자유의 여신상'이 태평양 쪽에는 없었기에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편파적인 개방사회라는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1960년대까지 미국사회는 유럽계의 이민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앵글로 색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쉽게 도전받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온존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60년대의 사회적 변혁은 이민의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됨으로 해서 미국사회가 이제 완전한 개방사회의 성격을 갖도록 만들어 갔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국사회를 진정한 의미의 다원사회, 다민족사회가 되도록 작용하는 것이었기에 이 기간 동안 특히 동양계 이민집단의 성장이 모든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실, 1960년대 이후 미국사회의 변화는 민족간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차별적인 사회에서 개방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지난 30여 년간의 변화는 미국의 인종적 소수 민족들에게는 무척 고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미국사회의 민족간 관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다시 보수의 바람이 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점증하고 있는 동양과 히스패닉계 이민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인구 추이를 분석해보면 백인인구는 2010년을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Carlson and Goldman, 1991: 64). 그에 반하여 아시아와 남미계 이민이 매년 전체 이민의 85%를 육박하고 있어 경계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새로운 이민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서기 2000년이면 백인이 더 이상 다수 집단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소수 민족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형편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아직도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백인집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현재로서는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적인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이제 이민의 문호를 닫아야 한다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백인집단의 경우, 그 무게가 후자에 실려있다는 증거는 많다. 이러한 견해의 대표적인 보기는 권위있는 시사지 〈Insight〉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글이다.

> "최근의 합법 및 불법 이민은 연간 1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 중 90% 이상이 비유럽계이기 때문에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미국을 진정한 다인종사회로 바꾸어가고 있다. 이제 미국은 곧 다수 집단은 없고 인종적 소수 집단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서구인을 중심 세력으로 하여 새로 온 이민이 따르고 동화해야 할 중심적 문화가 있었으며, 서구의 이민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문명의 유산을 공유하는 집단이었다. 이제 그 동질적 기초가 위협을 받으면 미국은 장차 인종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Auster, 1994 : 20)

보수적 백인집단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미국에서는 현재 반(反) 이민 무드가 고조되어가고 있다. 이민자의 공공혜택을 박탈하는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인종적 소수 민족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던 민권법의 차별철폐조처(Affirmative Action) 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급증하는 아시아와 남미계의 인구 예측은 과장된 면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수많은 백인 종족집단 중 오직 하나의 집단인 독일계 미국인들은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히스패닉계와 동양인 전체를 합한 비율과 거의 같다. 2020년 히스패닉과 동양계를 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16%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현재 독일계와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비율과 비슷한 수치일 뿐이다(Tucker, 1990 : 10).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새삼 다시 확인되는 것은 미국사회에 있어서 '인종'이라는 범주가 갖는 중요성이다. 그래서 미국의 민족문제는 결국 인종문제로 그 성격을 보다 뚜렷이 해 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미국에 있어서 인종적 편견과 태도에 관한 대규모 조사를 행한 슈만과 그의 동료들(Schuman et al., 1985 : 201)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말했다. "미국은 인종적 편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인종간의 결혼이 지난 수십년 동안 약간의 증가가 있었으나 그러한 작은 변화는 인종적 차이를 녹여 없애는 '도가니 해결책(a melting-pot solution)'이 될 수 없으며 또 가까운 장래에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Annual reports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Auster, Lawrence

1994 "Massive Immigration will Destroy America." *Insight*(oct.) pp.18-20.

Barth, Fredrik(ed.)

1969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London : George Allen & Unwin.

Bonacich, Edna,

1972. "A Theory of Ethnic Antagonism : The Split-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Oct.) : 547-559.

1973. "A Theory of Middleman Mino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Oct.) : 583-594.

Carlson, Richard and Bruce Goldman

1991 *2020 Vision : Long View of a Changing world.* Stanford, CA : Stanford Alumni Association.

Cavaioli, Frank J.

1984 *The Peripheral Americans.* Malabar, FL : R.E. Kriger Publishing Co.

Cox, Oliver C.

1948 *Caste, Class, and Race.* Garden City, New York : Doubleday.

Dinnerstein, Leonard & David M. Reimers

1982 *Ethnic Americans*(2nd ed.), New York : Harper & Row.

Eriksen, Thomas H.

1993 *Ethnicity and Nationalism :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Bouder, Colorado : Pluto Press.

Farley, Reynolds

1993 "The Common Destiny of Blacks and Whites : Observations about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the Races," in Herbert Hill and James E. Jones, Jr. (eds.), *Race in America : The Struggle for Equality.* Madison, WI :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p. 197-233.

Glazer, Nathan and Daniel A. Moynihan

1963 *Beyond the Melting-Po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Guest, Avery M., and James A. Weed

1976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 Patterns of Cha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March) : 1088-1111.

Hraba, Joseph

1979 *American Ethnicity.* Itasca, Illinois : F. E. Peacock Publishers, Inc.

James V. Koch

1987 "The incomes of recent immigrant : A look at ethnic differences" *Social Science Quarterly* 68 : 2 : 294-310.

Kallen, Horace

1924 *Culture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 Boni and Liveright.

Myrdal, Gunnar

1944 *An American Dilemma : The Negro Problem and Modern Democracy.* New York : Harper and Brother.

Novak, Michael

1971 *The Rise of the Unmeltable Ethnics.* New York : Macmillan.

Omi, Michal. and Howard Winant

1994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2nd edition) New York : Routledge.

Park, Robert E.

1939 "The Nature of Race Relations." in Edgar T. Thompson(ed.), *Race Relations and Race Problem : A Definition and Analysis.* Durham : Duke University Press. pp. 3-45.

Park, Robert E. and E.W. Burgess

1921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olog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chuman, Howard, Charlotte Steeh and Lawrence Bobo

1985 *Racial Attitudes in America.*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Sowell, Thomas

1981 *Ethnic America : A History,* New York : Basic Books.

Suttles, Gerald S.

1968 *The Social Order of the Slum : Ethnicity and Territory in the Inner Ci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akaki, Ronald

1993 "A Tale of Two Decades : Race and Class in the 1880s and 1980s." in Herbert Hill and James E. Jones, Jr.(eds.), *Race in America : The Struggle for Equality.* Madison, WI :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p. 402-416.

Topper, G.

1992 Review of JG Kellas(1991). "The Politics of Nationalism and Ethnicit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5 : 645-648.

Tucker, Robert W.

1990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 General Consideration." in Robert W.Tucker, Charles B. Keely, and Linda Wrigley(eds.), *Immigration and U.S. Foreign Policy.*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pp.1-14.

Warner, W. Lloyd, and Paul S. Lunt

1941 *The Social Life of a Modern Community.*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Warner, W. Lloyd, and Leo Srole
1945 *The Social Systems of American Ethnic Groups*.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Williams, Jr., Robin M.
1994 "The Sociology of Ethnic Conflicts : Comparative Internation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0 : 49-79.

Race and Ethnic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Hyup Choi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 nation of immigrants, as approximately 50 million people 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over the years. Today, there can be found diverse ethnic groups representing every nationality, race, and religion. Making sense out of this dynamic mosaic of groups is essential if we are to understand American society.

Assimilationism, ethnic pluralism, and ethnic conflict theory constitute the three principal schools of thought on race and ethnic relations. It is argued that each theory is only a partial explanation concerning ethnic/racial relations, but each makes up for some of what the other theories lack. Traditional assimilation theories seem preoccupied with the relatively voluntary migration of European immigrants into the United States. Opposit to the assimilationism is ethnic pluralism, a situation in which each group maintain its distinctive identity, subculture, and infrastructure. Both assimilationism and ethnic pluralism had largely emphasized European, white immigrants, thus, leaving the experiences of 'the racial minorities', such as Afro-Americans, Latin Americans, Native Americans, and Asian Americans, unaccounted for. Conflict theories are best fit to explain the situation of the racial minorities. There are three versions of conflict theory: internal colonialism, the split-labor market theory, and middleman minorities.

The dual themes of adaptation and stratification run through American history as well as American society. It is found to be useful to distinguish racially defined

minorities from ethnically defined minorites, because the adaptation processes of the non-white immigrant groups seem to differ substantially from the white, European immigrant groups. In this respect, the United States can be regarded as a racially stratified society.

최 협,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주소 :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Tel : 062-520-6781(O), 062-262-7819(H)